Eugene's FICC Update
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RA 이준영_ 02)368-6136_ lee.jy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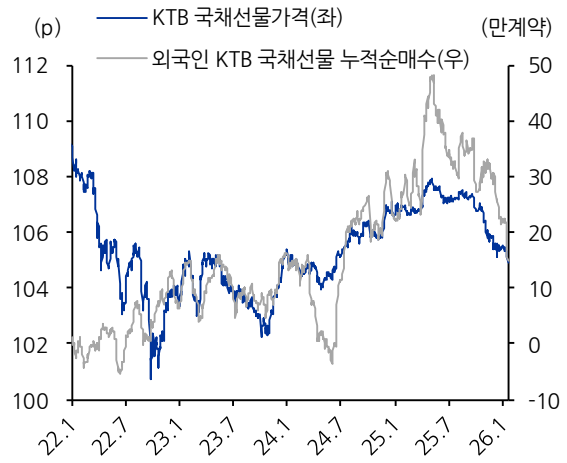
유진투자증권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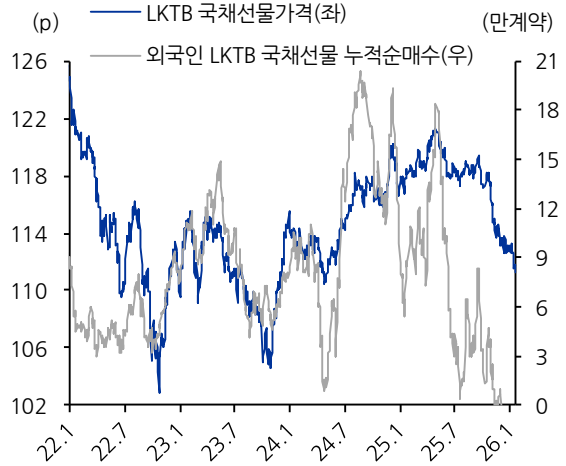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/19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130%	5.0	15.0	17.7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565%	7.7	17.3	18.0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43.5	40.8	41.2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4.93	-16.0	-39.0	-51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1.21	-59.0	-139.0	-171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589%	2.3	5.6	11.7
	미국채 10년물	4.225%	5.3	5.9	5.7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63.6	60.6	63.3	69.6
	독일국채 10년물	2.836%	0.2	-0.5	-1.9
	호주국채 10년물	4.724%	2.9	3.8	-2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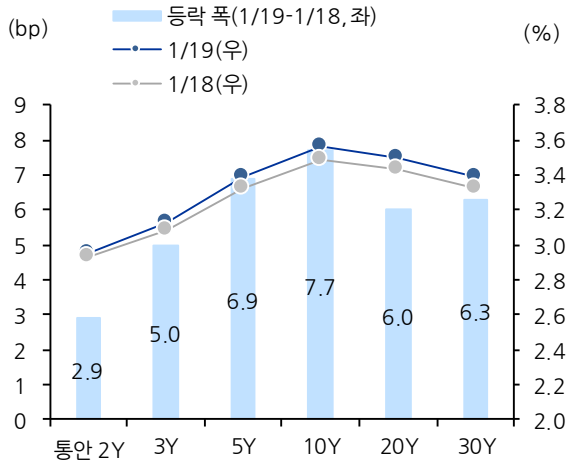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코스피 5,000을 앞둔 위험자산 선호와 일본 금리 상승 영향.
- 금통위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, 국고 10년물 입찰 부담으로 금리 상승 지속. 원/달러 환율 역시 1,470원대에 머물고 있어 경계심 여전했고, 증시 상승에 위험자산 선호가 우세.
- 일본 조기 총선거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확대 재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. 일본 10년 금리, 27년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며 아시아 금리 전체적으로 상승 견인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마틴루터킹 데이로 휴장.
- 트럼프 대통령, 그린란드 관세 부과 계획을 100% 실행할 것이라고 재확인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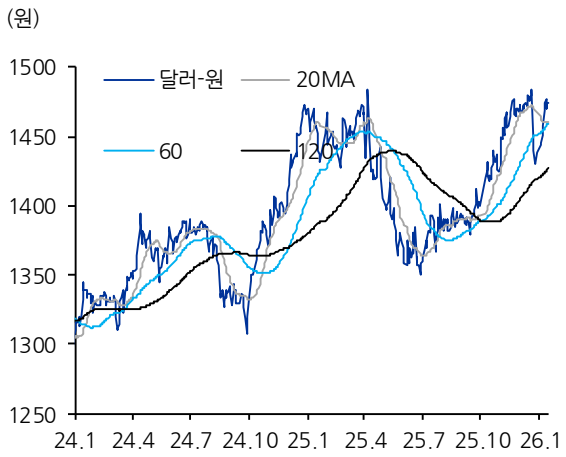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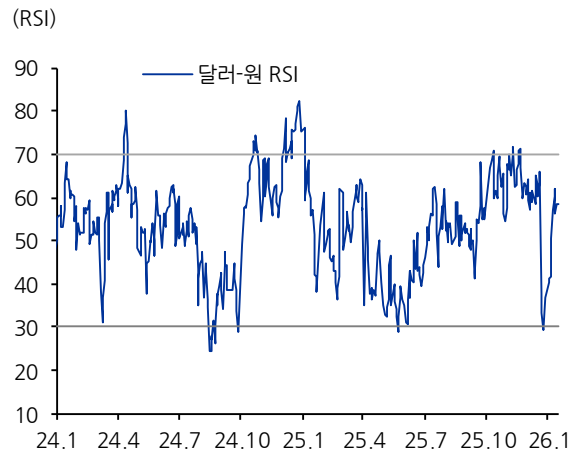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1/19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73.70	0.0%	0.4%	2.4%
	달러지수	99.04	-0.3%	0.1%	0.8%
	달러/유로	1.165	0.4%	-0.2%	-0.9%
	위안/달러(역외)	6.96	-0.1%	-0.1%	-0.4%
	엔/달러	158.13	0.0%	0.0%	0.9%
	달러/파운드	1.343	0.4%	-0.3%	-0.3%
	헤알/달러	5.37	-0.1%	-0.2%	-2.7%
상품	WTI 근월물($)	59.44	0.4%	0.5%	3.5%
	금 현물($)	4,670.77	1.9%	1.7%	8.2%
	비트코인($)	93,060.00	-2.7%	1.5%	5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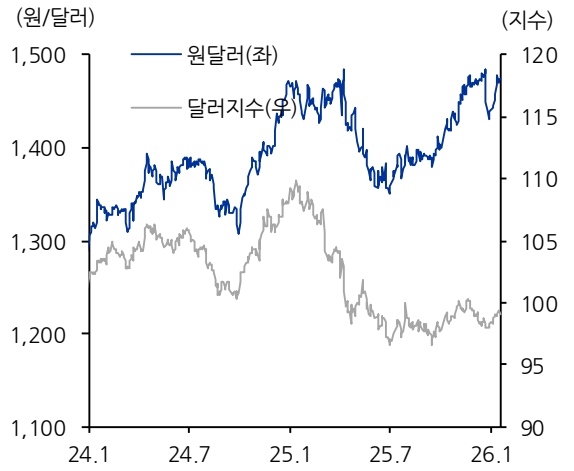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0.10원 상승한 1,473.7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473.10원 마감.
- 달러-원은 소폭 상승(+0.40원) 출발했지만 장중에는 1,470원 초중반대 박스권에 머물렀음.
-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며 환율에 하방 압력이 가해졌음. 달러 인덱스는 99선 초반으로 후퇴, 달러-엔도 158엔 초반까지 내려옴.
- 코스피가 5천pt에 근접한 상승을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미국 금융시장이 마틴루터 킹의 날로 휴장하면서 달러는 방향성을 만들지 못한 채 소폭 하락 마감.
- 중국에서는 내수 부진 신호가 한층 뚜렷해짐.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+0.9%yoy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3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, 소비 판매 증가율 둔화세는 7개월 연속 이어짐.
- 반면 중국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+5.2% 증가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, 연간 고정자산투자는 -3.8%로 통계 집계 이래 첫 감소를 기록하며 내수 및 투자 부진이 재확인됨.
- 금일 한국 생산자물가지수(PPI) 발표 예정.